

국립전주박물관, '서예문화실' 새단장

누구나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서예 전시 위해 감상법 소개·설명카드 등 비치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새롭게 단장한 '서예문화실'을 일반에 공개했다.

서예문화실은 누구나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서예 전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이에 따르면 서예의 조형적인 아름다움부터 글씨에 담긴 마음, 시대의 정서,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내고자 했다. 또한 관람객이 전시 공간에 머물면서 서예를 감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먼저 관람객을 맞는 입구에는 서예문화실을 감상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관람 동선, 작품 감상법, 설명카드 활용법 등을 친절히 안내해 서예 전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부담 없이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실 한편에는 서예문화실 감상법을 정리한 안

내문도 비치돼 있다.

작품 곁에 놓인 설명카드에는 작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함께 글씨의 내용이나 작가의 의도 등의 감상 포인트가 정리돼 있다.

이어 서예문화실은 총 5개 주제 공간으로 구성됐다. △글씨의 형태를 감상하는 '글씨의 곁', △서예에 담긴 뜻과 감정을 살펴보는 '글씨의 속', △역사 속 인물의 서예를 통해 사람과 시대를 읽는 '글씨는 그 사람', △전북의 근현대 서예가들을 조명하는 '전북의 글씨', △직접 글씨를 써보는 체험 공간 '글씨의 정원' 등이다.

전시실 중앙에는 전통가옥의 뒷마루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 또 다른 공간인 '생각 한 줄' 코너에서는 관람객이 자신의 글귀나 느낌을 종이에 직접 적어 보며, 감

상과 표현을 연결 짓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서예문화실에서 특히 눈에 띄는 곳으로 디지털 체험 공간인 '글씨의 정원'이 있다. 관람객들은 디지털 붓을 이용해 터치 모니터에 자신만의 글씨를 써 보고 내가 쓴 글씨를 실시간으로 사방을 가득 채운 미디어아트와 함께 감상한다. 전통과 현대 기술이 만나 나의 글씨가 곧 전시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통해 서예의 즐거움을 새로운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다. 한편 개편된 전시실에서는 조선 후기의 대표 서예가 김정희의 '잔서완석루', 정조의 '제문상정사' 등 보물급 서예작품을 비롯해 전북 지역의 근현대 서예 유산들이 함께 전시된다. 모든 전시품에는 전통 서예에 익숙하지 않은 관람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히 설명을 더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이근화 졸업생, 세계 무대 입성

이탈리아 밀라노 오페라극장 '라 스칼라' 솔리스트 선발

전북대학교 음악과(성악 전공)를 졸업한 바리톤 이근화씨(2017학번)가 이탈리아 밀라노의 세계적인 오페라극장 '라 스칼라(Teatro alla Scala)'의 솔리스트로 선발됐다고 전했다.

16일 전북대에 따르면 라 스칼라는 1778년 개관 이래 오페라와 클래식 음악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무대로, 세계 유수의 지휘자와 성악가,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오르는 전통과 명성을 지닌 극장이다. 이러한 무대에서 솔리스트로 인정받는 것은 뛰어난 음악성과 예술적 정체성,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의미 있는 성과다.

앞서 라 스칼라는 최근 한국의 세계적 지휘자 정명훈이 2027년부터 차기 음악감독



전북대학교 음악과(성악 전공)를 졸업한 바리톤 이근화씨(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이탈리아 밀라노의 세계적인 오페라극장 '라 스칼라'의 솔리스트로 선발됐다.

으로 임명돼 화제가 된 바 있다. 이근화씨의 이번 선발은 한국 클래식계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

/장은성 기자

고창 고인돌 박물관,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 박물관' 됐다

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치 반영한 명칭 변경 운영

고창군이 '고창 고인돌 박물관'의 명칭을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 박물관'으로 변경해 공식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명칭변경은 고창 고인돌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2000년)라는 국제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박물관의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창 고인돌 유적은 강화, 화순과 함께 '고창·강화·화순 고인돌 유적(Gochang, Hwasun and Ganghwa Dolmen Sites)'이라는 이름으로 등재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청동기시대 거석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 박물관 전경

문화의 대표적 유산이자 인류 보편적 문화로 평가받고 있다.

고창군은 그간 2008년 고창 고인돌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해 지역민과 관람객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며 다양한 전시, 체험·교육

활동을 펼쳐왔다.

이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국제적 위상을 명칭에 반영해 국내외 관람객에게 명확한 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태권도의 날 기념 전국 대학생 태권도 학술경진대회 개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현 의원과 함께 '2025 태권도의 날 기념, 전국 대학생 태권도 학술경진대회' (이하 학술경진대회)를 개최하며 참가 신청을 받는다.

참가 신청은 8월 1일 오후 6시까지로, 태권도 또는 체육 관련학과 학부 재학생 및 태권도 동아리 소속 학부 재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고 1인에서 3인까지 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서면 심사에서 총 6명(팀)의 본선 진출자를 가리고 본선은 8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표 심사로 진행된다.

4회째를 맞는 올해 학술경진대회는 학술 교

류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발표 주제는 '태권도진흥재단 주도 태권도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전략', 'K-컬처 연계 콘텐츠 개발을 통한 태권도 세계화 기여 방안', '태권도진흥재단 20주년과 연계한 주요 태권도 단체 공공 서비스 평가 및 혁신 전략', '태권도 관련 자유 주제' 중 선택해 참가할 수 있다.

서면과 본선 심사 결과에 따라 최우수상 1명(팀)에게 3백만 원, 우수상 2명(팀)에게 2백만 원, 장려상 3명(팀)에게 1백만 원의 학술장려금이 지급되며 본선에 진출한 6명(팀)에게는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문화재단, 장애예술교육 '사이:예술학교' 예술가 모집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은 2025년 장애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이:예술학교' 예술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와 예술, 지역과 사람을 예술로 연결하는 새로운 교육 플랫폼으로, 예술가가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여 장애예술인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예술교육을 실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모집 대상은 원주에서 활동 중이거나 활동 가능한 모든 예술 분야의 예술인으로, 장애예술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약 10명 내외이며, 선정된 예술가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완주군 전역에서 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펼치게 된다.

선정된 예술가들은 '사이:예술학교'의 기초가 되는 연구모임에 참여하고, 해당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예술교육 자로서의 전문성을 키우고, 지역 기반의 예술교육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동참하게 된다.

활동 예술가에게는 연구모임비(총 40만원, 8회 기준)와 함께, 예술교육 진행 시 회당 15만원(최대 6회)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월 1회 수준의 전문가 멘토링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예술가들이 교육 현장에서의 고민을 나누고 전문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군산영광여고서 'JB인문학 강좌' 개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후원하는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지난 15일 군산영광여자고등학교에서 '2025 JB인문학 강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공공소통 크리에이터 켈리장을 초청해 '우리의 상상력은 어떻게 거리로 나오는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서울 도심 곳곳을 상상력과 메시지로 채우는 공공 프로젝트로 주목 받고 있는 켈리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퍼포먼스와 거리 캠페인을 통해 평범한 공간을 예술과 소통의 장으로 전환시키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날 강좌에서 켈리장은 자신의 대표 프로젝트 소개와 함께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제와 감정을 공공적 메시지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



한 통찰을 공유하며 "우리 사회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작은 행동 하나가 분위기나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사소한 행동이라도 꼭 실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